

# 또 다른 '가을잔치' 제 3회 무등기 폐막 '자연환경' 사회인 야구 챔프 등극

**천왕 - 자연환경 리턴 매치서 완승**  
**지왕 - NH디스크스 끝내기 역전승**  
**인왕 - 페가수스 불방망이로 우승**  
**호남 - 버팔로스 4회 8점뽀아 승리**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인들의 '가을잔치'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제 3회 광주·전남 사회인야구대회의 결승전이 26·27일 이틀간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렸다.

자연환경, NH 디스크스, 페가수스, 버팔로스가 대회 마지막 승리를 장식하며 천왕·지왕·인왕·호남리그의 세 번째 우승팀으로 이름을 올렸다. '디펜딩 챔피언' 화순에스레틱스와 팔도참오리는 아쉽게 고개를 숙이며 대회 2연패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6일 호남리그와 인왕리그의 승자가 먼저 가려졌다.

앞선 대회에서 각각 우승과 1회전 탈락으로 명암이 엇갈렸던 화순에스레틱스와 버팔로스의 대결. 1회부터 양팀이 2점씩 주고 받으며 기싸움을 했다. 3회 화순에스레틱스가 1점을 더했지만 리드는 오래가지 못했다. 버팔로스가 4회 대거 8점을 뽑아내는데 성공하면서 승부의 추를 기울였다. 화순에스레틱스가 6회 6점을 뽑으며 막판 추격에 나섰지만 버팔로스의 에이스 정현재가 7회를 무실점으로 막으며 13-9의 승리를 지켰다.

대전철강과 페가수스의 인왕리그 결승도 4회가 분수령이 됐다.

페가수스 1회 2점을 먼저 뽑아냈지만 2회 5실점에 이어 3회 두 점을 헌납하며 2-7로

역전을 허용했다. 3회 5점을 만들며 승부를 7-7 원점으로 돌린 페가수스는 4회 4점을 보태며 대전철강의 추격을 뿌리쳤다. 6회에도 5명의 주자가 홈을 밟으면서 경기는 17-8, 페가수스의 승리로 끝났다. 천왕리그 초대 우승팀인 페가수스는 인왕리그 정상까지 밟으며 무등기와의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다.

27일에는 지왕리그에 이어 천왕리그의 승부가 전개됐다.

무등산생태요양병원과 NH 디스크스가 맞붙은 지왕리그는 투수전 양상이었다. 무등산생태병원이 2회 선취점을 가져간 뒤 3·4·5·6회 0의 행진이 계속됐다. 무등산생태병원의 7회 마지막 공격도 무위로 돌아간 뒤 NH 디스크스가 7회말을 맞았다. 극적으로 동점에 성공한 NH 디스크스는 이어진 1사 만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조재현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짜릿한 역전승이 만들어졌다.

무등기 마지막 레이스였던 자연환경과 팔도참오리의 천왕리그 결승은 1년 만의 리턴 매치로 눈길을 끌었다. 두 팀은 지난 대회 결승에서 맞붙었던 맞수. 지난해에는 팔도참오리가 12-8로 승리를 거두며 주인공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패기의 에이스를 앞세운 자연환경의 '가을잔치'였다. 자연환경의 선발 박래준은 7이닝 3실점으로 결승전 완투승을 장식하며 팀에 7-3 승리를 안겨줬다.

각 리그의 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 메달,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준우승팀에게는 트로피·우승메달 및 상금 30만원, 3위 팀에게는 메달과 시합구 1타가 부상으로 돌아갔다. 각 리그 우승팀 감독과 최우수선수, 우수선수에게는 개인상이 수여됐다. 김기철

## 결승전 스코어보드

- ◆천왕리그  
 자연환경 3301000-7  
 팔도참오리 1100100-3  
 △최우수선수상 : 박래준(자연환경)  
 △우수감독상 : 정상현(자연환경)  
 △우수선수상 : 강기석(팔도참오리)
- ◆지왕리그  
 무등산생태요양병원 0100000-1  
 NH 디스크스 0000002-2  
 △최우수선수상 : 조재현(NH 디스크스)  
 △우수감독상 : 김영두(NH 디스크스)  
 △우수선수상 : 손석민(무등산생태요양병원)
- ◆인왕리그  
 대전철강 0520001-8  
 페가수스 205415X-17  
 △최우수선수상 : 김희욱(페가수스)  
 △우수감독상 : 임창일(페가수스)  
 △우수선수상 : 김상수(대전철강)
- ◆호남리그  
 버팔로스 2008300-13  
 화순에스레틱스 2010060-9  
 △최우수선수상 : 정현재(버팔로스)  
 △우수감독상 : 이윤근(버팔로스)  
 △우수선수상 : 김경태(화순에스레틱스)

심판위원은 심판상을 받았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시 야구협회·광주시 생활체육회 야구협회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시 생활체육회·전남도 생활체육회·KIA 타이거즈가 후원했다. /김여욱기자 wool@kwangju.co.kr



“이 맛에 감독하지...” 27일 광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제3회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천왕리그 결승전에서 승리를 거둔 자연환경 선수들이 정상한 감독을 행가래 치며 기뻐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3번째 무등기 사회인야구 수준 높였다”

### 대회운영 총괄 이영현 사무국장

“해를 거듭할수록 경기 질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팀이 참가했으면 합니다.”

이번 대회운영을 총괄한 이영현(44) 사무국장은 “올해로 3회째인 대회를 치르며 사회인 야구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는 아마 야

구인들이 선망하는 무등경기장에서 결승전을 치러 더 의미가 깊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지난해는 선수출신이 천왕리그에서 뛸 수 있었던 반면 올해는 순수 야구 동호인들만의 경기로 치러졌다. 내년에는 호남리그가 활성화돼 많은 전남·북 팀들이 대회에 참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국장은 광주·전남 지역 사회인 야

구의 발전을 위해 아마 전용구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사무국장은 “원활한 대회운영을 위해서는 운동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다. 사회인 야구동호인들이 맘 놓고 야구 할 수 있는 정규 운동장이 절실하다”면서 “2015년 U대회 이후 무등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한 후 아마야구 전용 구장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① 천왕리그 우승 자연환경



#### “1년 간 와신상담... 최고대회 우승이라 기뻐”

**정상현 감독** “1년을 기다렸던 경기에서 승리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천왕리그의 우승을 지휘한 자연환경 정상현(38) 감독에게 지난해 무등기는 아쉬움이었다. 우승을 앞에 두고 팔도참오리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1년을 기다렸던 무등기. 이번 결승전에서 다시 팔도참오리를 만났기 때문에 더 우승에 대한 욕심이 컸다.

정 감독은 “지난해 우승을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이번 대회에서 우승컵을 차지해서 기분이 좋다. 팔도참오리와의 재대결이었던 만큼 더 욕심을 내고 준비를 했다”며 “특히 수비에 공을 들였다. 평소 사용하던 경기장보다 큰 무등경기장에서 대결이었던 만큼 수비와 기동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정 감독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만큼 경기가 이뤄지면서 자연환경은 ‘리턴매치’의 승자가 됐다.

정 감독은 “내가 잘했다기 보다는 팀원들이 잘해줘서 나온 결과다. 지금까지 팀원들간에 신뢰와 우애를 돈독히 하면서 성실한 야구 그리고 ‘역전의 명수’로 자연환경을 이끌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팔도참오리와 결승 리턴매치서 완투승

#### MVP 박래준

“지역을 대표하는 대회 우승이라서 기쁨이 더 큼니다.” 자연환경의 ‘젊은 피’ 박래준(22)이 팔도참오리와의 리턴 매치에서 완투승을 장식하며 천왕리그 MVP에 올랐다.

7회까지 결승전 마운드를 책임진 박씨는 “무등기 하면 지역에서 하는 제일 큰 사회인 야구 대회다. 또 무등경기장은 뛰고 싶은 무대이고 쉽게 경기를 할 수 없는 장소다. 그래서 긴장을 하기는 했지만 동료들과 함께 평소처럼 하자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했다”며 “무등기에 출전하면서 세운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었다. 우승이라는 목표를 이루게 돼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무등중 1학년 때까지 야구를 했던 경험이 있다. 야구를 잊고 있던 박씨에게 부모님이 먼저 사회인 야구를 권하셔서, 이것을 계기로 지난 봄 자연환경의 유니폼을 입었다.

박씨는 “사회인 야구를 하면서 사람들의 만남도 갖고 운동도 할 수 있게 됐다”며 “활개라는 게 좋다. 팀이 생체리그 1위를 하고 있는데 남은 경기도 잘해서 다시 한번 팀원들과 우승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 ① 지왕리그 우승 NH디스크스



#### “평균 40대 중반... 야구하면 나이 잊어오”

**김영두 감독** “창단 첫해에 우승을 차지해 기쁩니다.” NH디스크스가 무등산 생태요양병원에 2-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지난 3월 창단한 디스크스는 회원 25명 가운데 반수가 농협(NH)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김영두(47·남광주농협 효덕지점장) 감독은 “농협동맹회와 지역 농협간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리그에 참가했다”며 “동호인들의 평균 나이가 40대 중반에 이르지만 너무 야구를 좋아해 나이를 잊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팀의 강점으로 야구에 대한 열정과 함께 팀 워크와 집중력을 꼽았다.

우익수와 지명타자를 맡고 있는 김 감독은 한달전 대회출전을 앞두고 연습도중 타구를 왼쪽 눈에 맞아 실명위기를 맞기도 했다.

김 감독은 “팀 원들은 얼마 안되지만 올해 토요일과 광주 베이스볼 리그 우승을 잇따라 차지했다. 앞으로 8강에 오른 봉황대기에 집중해 좋은 결실을 맺겠다”고 강조했다.

### 투수로 2승·타격은 경기마다 멀티히트

#### MVP 조재현

“박빙 승부 경험이 많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지왕리그 MVP를 거머쥔 조재현(25)은 1-1로 팽팽하게 맞선 7회말 1사 만루 찬스상황에서 결승타를 날려 2-1로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역전의 명수’로 불리는 NH디스크스는 7회초까지 0-1로 뒤졌으나 7회말에 동점을 만든 후 주어진 승기(勝機)를 놓치지 않고 극적으로 전세를 뒤집었다.

이번 대회에서 투수와 3루수를 맡아 뛰었던 조씨는 게임 때마다 2안타를 날리고 2승을 거두는 등 투타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자신있는 구종은 직구와 슬라이더. 2년전 사회인 야구에 입문한 조씨는 “팀원들의 조직력이 탄탄하다. 특히 어려가 없이 수비가 좋다. 결승전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경기에 집중해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면서 “팀원들끼리 생활을 배우고 소속감을 느끼는 작은 공간”이라고 말했다. 팀원들은 퇴근 후와 주말에 모여 대회를 준비해왔다.

현재 동신대 대학원에서 작업(作業)치료를 전공중인 조씨는 농협 중앙회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① 인왕리그 우승 페가수스



#### “끈끈한 팀워크가 우승 원동력”

#### 임창일 감독

“가을잔치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인왕리그의 임창일(37) 감독에게 무등기는 ‘가을잔치’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인 만큼 가장 기다리고 준비했던 무대. 우승의 기쁨은 그래서 더 크다. 페가수스에게는 두 번째 무등기 우승이다. 2011년 제 1회 대회에서 천왕리그의 챔피언이었던 페가수스는 이번에는 인왕리그 패권을 차지했다.

임 감독은 “팀원들이 열심히 해서 가을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수비 연습을 많이 하면서 결승을 준비했다. 중간에 역전을 허용했는데 최선을 다하면 역전을 할 수 있다고 선수들을 독려했다. 팀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에이스가 어깨 부상으로 결승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형·동생같은 끈끈한 팀워크가 있었기에 우승까지 이룰 수 있었다. 임 감독은 “다들 고생 많이 했는데 경기 초반 손가락 부상까지 당하면서도 역할을 충실하게 해준 김영하 포수에게 특히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11월에 호남 최강전이 있는데 무등기 우승으로 자신감이 붙은 만큼 투수를 재조정 해서 또 다른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리그 12승 다승왕... 결정구는 투심

#### MVP 김희욱

“다승왕에 이어 우승까지, 행복한 시즌입니다.” 페가수스의 에이스 김희욱(34)은 마지막 경기에는 등판하지 못했다. 어깨가 좋지 않아 마운드가 아닌 벤치에서 팀 우승을 외쳤다. 하지만 팀의 결승행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MVP의 영예를 안았다.

김씨는 “올해 리그에서 다승왕(12승 무패)도 했고, 무등기 우승까지 했다. 행복하다. 팀원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 결승에 뛰지 못했는데 MVP로 선정해준 감독님에게도 감사하다. 결승에 대한 욕심도 있었지만 올해만 야구를 하고 말 것이 아니라서 경기에는 뛰지 않았다. 또 팀에 좋은 투수가 있기 때문에 믿고 응원을 했다”고 밝혔다.

김희욱씨는 인성과 시절 유도선수로 활약했던 만능 체육인. 5년전 야구가 좋아서 시작한 사회인 야구가 이제는 삶의 큰 기쁨이 되고 있다.

김씨는 “야구 보는 것을 좋아하다가 직접 운동을 하게 됐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야구를 금방 배우게 됐다. 투심을 결정구로 사용한다. 팀원들과 함께 야구를 하는 게 즐겁다”고 말했다.

### ① 호남리그 우승 버팔로스



#### “6년만의 첫 우승... 팀원·가족들에 감사”

#### 이윤근 감독

“2007년 이후 우승이라 감격스럽습니다.” 버팔로스의 시작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구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 그 역사가 23년이 됐다. 전통과 역사의 팀이지만 최근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우승을 지휘한 이윤근(40) 감독은 “2007년도 이후 첫 우승이다. 그만큼 더 기분이 좋다. 팀원들이 교체와 기용 등에 대해 불만 없이 잘 따라줬다. 감사하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이번 결승은 지난 대회 우승팀 화순에스레틱스와의 경기였다. 그만큼 긴장이 되는 승부였다. 이 감독은 “어려운 상대라 긴장을 했다. 사실 타력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상대팀 실수가 있어서 경기를 쉽게 풀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감독이 꿈꾸는 버팔로스는 ‘가족’이다.

이 감독은 “불특정다수가 함께 운동을 하는 게 사회인 야구의 묘미다. 가족들이 주말에 가장을 뺏긴다고 서운해 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함께하는 야외 등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역사처럼 전통 있는 가족 같은 팀의 명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팀 에이스... 마지막 승부 마운드 지켜

#### MVP 정현재

“MVP를 받은 것보다 팀이 우승을 했다는 사실이 더 기분이 좋습니다.” 버팔로스의 정현재(38)가 회사의 직구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호남리그 MVP에 올랐다. 매 경기 팀의 에이스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 정현재는 대회 마지막 승부에서도 마운드를 지키며 우승의 주역이 됐다.

정씨는 “내 역할도 역할이지만 동료들이 잘해서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가 나왔다. 뒤에서 수비를 잘 받쳐줬기 때문에 자신있게 공을 던질 수 있었다. 동료를 믿고 경기를 했다”고 함께 땀을 흘린 동료에게 공을 돌렸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이번 무등기 우승. 지난 대회 1회전 탈락의 아쉬움이 있었기에 이번 우승이 더욱 값졌다.

정씨는 “지난해 대회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수들이 주말마다 타격 연습 등을 하면서 무등기를 준비했다”며 “야구를 시작한 지는 8년 정도가 됐는데 형님·동생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는 게 매력이다. 광산리그 대회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이 끝이 아니라서 이번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